



# 흥망의 역사 속 파괴된 유물들 '무상' 설법



시크로드란 옛날부터 중국의 주요한 교역로였던 비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역품들이 오고갔던 동서교통로를 말한다. 이 실�크로드를 통하여 교역품만 오고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와 문화가 오고 갔다. 특히 이 길을 따라 동아시아 전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끼쳤던 불교가 들어왔다.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오아시스 실�크로드를 23일 일정으로 여행하였다.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시작하여 탁실라, 이슬라마바드, 칠라스, 길기트, 훈자를 둘러보고 나서 쿤자라패스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갔다.



훈자는 플라타너스나무가 우거져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저 멀리 흰구름이 내려 앉은 레이다스 핑거산이 보인다.

## # 깨달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부처님처럼

아침 일찍 눈을 떴다. 내가 묵고 있는 곳은 자동차 대리점이 몰려 있는 곳이라 그런지 눈을 돌리면 온통 자동차 광고판이다. 오토릭사들이 아침 출근자들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인지 라호르의 아침은 인도의 아침풍경을 연상케 하였다. 짜이를 파는 노점상이 있기에 짜이 한 잔을 주문했다. 이곳 또한 인도와 다를 바 없이 새벽부터 짜이 가게에는 남자들이 몰려 있었다. 어찌나 더운지 가만히 있어도 땀이 그냥 줄줄 흐를 정도다. 라호르는 파키스탄 제 2의 도시이며 상업중심지로서 5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 무굴의 3대 황제 악바르가 수도를 정하고 14년간 라호르성을 짓고 구시가지지를 세운 도시이다. 1981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라호르성곽과 살리마르 정원이 무굴 제국의 흔적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영국의 지배를 받던 1864년에 세워진 라호르박물관이 유명하다. 간다라 미술의 최고 걸작품으로 손꼽히는 <고행하는 부처상>을 보기 위해 세계 각국 사람들이 라호르 박물관을 찾는 것이다.

박물관에는 간다라지역에서 출토된 많은 불교유물들을 비롯하여 인더스 유역의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의 유물 그리고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 온 중국의 도자기와 비단 등도 전시되어 있다. <고행하는 부처상>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다. 시타르타 태자는 그 당시 인도의 수행자들이 행하던 어려운 고행만을 끝낼 수 행하였다. 몇 톨의 쌀알이나 깨알과 한 모금의 물로 하루를 보내기도 하였다. 어느 날 문득 시타르타는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은 오히려 육체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을 고요하고 깨끗하게 가지는 일에 소홀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눈은 해골처럼 움푹 들어가고 뺨은 가죽만 남았다. 몸은 점점 뼈만 남은 앙상한 골격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단식을 행하던 모습은 조각한 것이 <고행하는 부처상>이다. 부드럽게 물결치는 듯한 곱슬머리의 불상, 하얀 대리석에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조각된 부처님의 족적, 부처님의 일대기가 조각된 스투파 등을 보면서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부처님의 생애를 떠올려보았다. 박물관을 나와 라호르성으로 발길을 돌렸다. 타

지마할을 건축한 사자한은 아그라보다도 라호르를 더 좋아하였다고 한다. 사자한의 왕비 푼타지마할이 하늘의 별을 따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었던 사자한은 그녀에게 거울 궁전을 지어주었다. 네 벽면을 온통 거울로 장식한 거울궁전은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힘되고 슬픈 노역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라호르성곽과 아우랑제브가 지었다는 바드사히모스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신발을 탈고 모스크에 들어서자, 너무나 넓은 공간이 눈에 들어온다. 이 모스크는 건물 내부에 1만 명, 넓은 뜰에 9만 명이 예배를 볼 수 있는 무굴 최대의 모스크이다. 햇빛에 탐구어진 정원을 걸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어떤 모양과 상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인지라 아무 것도 없다. 예배시간이 아니어서 그 넓은 공간에 오후의 햇살과 적막으로 가득 차 있어서 좋았다.

# 탁실라, 불교문화와 진리탐구의 중심지  
여섯밤에 내린 비로 탁실라 박물관 가는 길은 흙

탕물로 넘쳐났다. 탁실라는 불교문화의 중심이었으며, 진리탐구와 지식 전수의 중심지로서 오늘날의 대학 같은 곳이었다고 한다. 기원전 4세기에 8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간다라지역에 들어와 주둔했던 알렉산드로스대왕은 이곳을 떠날 때 많은 병사들을 남겨두고 떠났다. 남겨진 병사들은 이곳에서 그리스문화를 전파하면서 자손을 낳고 뿌리를 내렸다. 이곳을 침략한 알렉산드로스대왕은 토착민들의 문화를 파괴하는 침략자들과는 달리 그리스 문명을 동방에 이식하였다. 이것은 알렉산드로스대왕이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아크로폴리스언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 그리스인들은 우상과 신전이 없는 이 새로운 종교를 위하여 공예가들은 다투어 불상을 만들고 건축가는 장엄하고 화려한 사원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화려한 간다라 불교예술이 탄생한 것이리라. 탁실라는 비르마운드, 줄리안사원, 모흐라 모라두, 간디알사원, 시드갑 등 수많은 유적지가 있으며, 1980년 유네스코로부터

대단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탁실라 박물관의 정원은 정갈하게 가꾸어져 있고, 분홍빛 부겐빌리아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탁실라 주변에서 발굴된 불상과 동전, 고대 항아리 등이 전시되어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모흐라 모라두에서 발굴된 일곱 스투파의 복제품이 사람들을 반겨준다. <잠자는 악공>과 <고뇌하는 악공>을 보았다. 연주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눈을 붙이는 잠자는 악공의 그 무거운 눈꺼풀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악공의 고뇌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박물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줄리안 사원이 있다. 줄리안 사원에는 여러 기의 작은 스투파들과 불상들이 있다. 소원을 들어준다는 힐링 부처(HEALING Buddha)가 있는데 아마도 우리의 약사여래불이 아닌가 싶다. 불상의 가슴에 구멍이 나 있는데 여기에 손을 넣으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는 소원을 빌면서까지 무엇을 구하려하기 보다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원에는 스님들의 거처인 요사 채가 있는데, 2층으로 된

## 성불 조각원

www.sungbul.co.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

**성불조각원이 하는 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옹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합니다.





서울 송림안 석가모니부처님



신홍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